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News Letter

사무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3층 / Tel : 051-462-7473 / Fax : 051-466-4709

임시총회서 신임이사 2명 선출 이영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사장, 김진갑 (주) 해중 회장 산하에 위원회, 포럼 등 들 수 있게 정관 변경



2009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있다.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서의택 이용흠)는 9월 21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신빌딩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 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영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사장(62)과 김진갑 (주) 해중 회장(46)을 신임 이사로 선출했다.

이들 신임이사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이다. <2면에 신임 이사 프로필>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을 일부 수정, 한일터널연구회 산하에 재정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와 포럼 등의 기구를 들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한일터널연구회는 지난 제3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 8월 31일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선출 건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본회 임원진, 허남식시장 만나 협조 당부 허시장 “부산지역에 물류환적장 설치 바람직” 강조

한일터널연구회 서의택 이용흠 공동대표와 박치권 사무총장, 이우봉 이사 등이 지난 8월 13일 오전 부산 시장실에서 허남식 시장과 만나 본회 현황과 활동사항 등을 설명하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허시장은 한일터널의 노선은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셔틀형식의 수송체계가 돼야 하며 특히 부산지역에 한일터널 터미널과 물류환적장 등이 설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주간, 월간지 기자 5명, 한일터널 노선답사

평화통일재단 초청으로 가라쓰 조사사갱 둘러봐

중앙 주간지 및 월간지 기자 5명이 평화통일재단 초청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한일터널 노선답사에 나서 일본쪽 터널 입구 후보지인 사가현 가라쓰 일대와 중간 지상역이 들어설 대마도를 둘러봤다.

이 노선답사여행에는 평화통일재단 고부안 한일터널포럼 사무처장과 광결호·자문위원(전 환경부장관) 조병철 고문, 한기승 동의대교수 등이 동행했다.

이들 일행은 11일 항공편으로 후쿠오카로 가 사가현 가라쓰의 한일터널 조사사갱 현장을 방문, 현재 5백미터 가량 굴착된 조사사갱 내부를 둘러보고 후지하시 겐지(藤橋健次) 일터널 연구회 상임이사로부터 일본 측이 연구한 하저터널 노선, 거리, 수심, 해저지질, 예상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다.

일행은 다음날인 12일 하카다에서 페리편으로 대마도로 가 한일터널의 지상역 후보지를 둘러보고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와 숙소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한기승교수의 한일 교류사에 대한 특강이 있었고 후지

하시 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들은 13일 오전 후쿠오카 유적지 등을 둘러본 뒤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이번 노선답사에 참가한 언론사와 기자는 다음과 같다.

△ 시사 인 주진우 △ 위클리 경향 박미소 △ 월간 중앙 이동훈 △ 주간 동아 이지은 △ 여성 조선 백은영 기자 *



후지하시 상임이사(가운데 넥타이 차림)가 노선답사 일정 중 열린 세미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신임이사 프로필

이영(李英) 신임이사



- △ 현 부산 상공 산업단지개발(주) 사장
- △ 부산대 정외과 졸, 부산대 행정대 학원 수료
- △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시의회 의 장,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역임

김진갑(金鎭甲) 신임이사



- △ 현 (주) 해중 회장
- △ 한양대 경영학과 졸, 부경대 경영 대학원 수료
- △ 현 센텀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 회 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평 가심의의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정책자 문위원, 한국어업기술협회 부회장,

한국해양기업협회 운영위원

개정된 정관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전문위원회)	제 20조(전문위원회 등)
①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술, 기술, 지식 등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좌동.....
② 전문위원 위촉과 당해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나 포럼 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나 별도의 위원회 및 포럼 등의 명칭과 위원의 추대, 위촉 및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최재범 한진중공업 부회장, 대마도에서 한일터널 설명회 김무성의원 등 부산출신 국회의원 5명에게

최재범 한진중공업 부회장이 지난 8월 8일 오전 대마도 이즈하라시청 별관에서 한나라당 김무성의원과의 이진복 이종혁 현기환 박민식의원 등 부산출신 국회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터널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최 부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일터널 건설과 관련, 한일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루트안, 기술적인 문제, 한일터널 건설에 따르

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약 1시간반 동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 지역 언론사 기자, 부산시청관계자, 부산시요토험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무성의원 일행은 부산지역에 요트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발족한 '부산마리나산업개척단'을 이끌고 8월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마도를 방문하면서 최부회장을 특별



초청, 한일터널 건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뉴스 클리핑

“한일 · 한중터널 동시 구축, ‘아시아 채널’ 만들자” 제9차 환황해 한 · 중 · 일 경제기술교류회의서 주장 ‘한일 한중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 결성 필요성도 제기

지난 7월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개최된 ‘제9차 환황해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일터널과 한중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부원장은 “2030년이 되면 한중일 3개국이 전 세계 GDP의 29.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경제권 통합에 대비한 국제규모의 교통시설이 필요하다”며 일한,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의 지식경제부와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 일본 큐슈 경제산업국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조 부원장은 “한일 한중터널 건설로 한국의 KTX, 일본의 신간선, 중국의 허시에하오(和諧號)가 연결되어 동북아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여객 및 물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큐슈여객철도주식회사 이시 요시타

카(石井 幸孝) 전 회장은 ‘아시아 채널터널에 관한 고찰’이란 주제발표에서 부산과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기존 궤속선의 소요시간이 2시간 55분이었으나 일한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한일, 한중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아시아 채널터널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한솔엔지니어링 김한용 사장은 ‘한일 한중 해저터널 건설기획단 구성 및 운영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일,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가 국가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공동연구체제로의 전환과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한일 한중 해저터널 공동추진기획단’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역, 투자, 산업기술 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축을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회의이다.*

“공룡 중국 활용, 한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어야” 남덕우 전 총리, 선진화포럼에서 주장 “통일 대비해 연해주 개발, 북한동포 이주 도와야”

남덕우 전 총리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38차 월례 토론회(사진)에서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아시아, 보다 정확하게는 동북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머지않아 동북아의 공룡이 되고 40년 후에는 미국을 제친 세계의 공룡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의 파급 효과에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한국을 동북아의 인류(人流), 물류(物流)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한반도와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통신망 같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6만5천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는 연해주로 진출해 이 지역의 천연가스, 농약물, 해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시베리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해주 진출과 관련, 그는 “특히 연해주 개발에 대해선 남북통일에 대비하자는 의미도 있다”며 “지금부터 연해주를 개발해 살 만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선진화포럼은 최근 국내 전문가들과 연해주 현지 사정을 파악, 토지의 49년 장기 임대 가능하고 한인 주민이 5000명이 넘으면 자치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남 전 총리는 “우리나라가 중국 공룡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자면 동북아의 안전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의 통일 문제를 현실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6자 회담을 ‘동북아안보협의체’ 즉 ‘동북아시아협력기구(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NASO)’로 전환,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남 전 총리의 한국선진화포럼 특별 강연회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정종욱 전 주중대사,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우식 교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 전 총리가 제시한 방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추가 발제 및 토론을 벌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

회원 가입신청 받습니다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공동대표 서의택, 이용흡)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일터널 건설은 한국과 한반도가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과 양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나아가 한일터널은 한, 중, 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같은 신념에 공감하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회원이 되면 한일터널 건설을 위한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의 국내외 학술행사와 한일터널 루트답사 등의 활동에도 참가할 기회를 드립니다.

또 회원들에게는 약 2개월에 한번씩 발행되는 ‘뉴스레터’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가입신청 연락 :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부산시 동구 초량3동 일신빌딩 3층)

전화: 051-462-7473

◆ 회원 종류 : 일반회원(정회원) -연회비 2만원

특별회원 - 약정액(1구좌 1백만원)